

설교후기도 ..... 설 교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의 큰 명절 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올 한해를 살아가려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품고, 지켜주는 올 한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찬송 430장 ..... 다 같 이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대로 주와 같이 걸겠네
  -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 (후)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신년감사예배**는 낡은 해를 과거로 돌리고 새해를 여는 뜻깊은 예배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류역사를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년에 낡은 시간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년예배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해,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 지침

-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 앉습니다.
-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2년 설 가정예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11:12)

예배로 부름 ..... 인 도 자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상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  
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 304장 ..... 다 같 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 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기 도 ..... 가 족 대 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지난 한 해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생사고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13장 34-35절 ..... 말 은 이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설 교 말 씀 ..... 서로 사랑하라 ..... 말 은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 돕는  
베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돕는 베필’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돕다, 호위하다,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  
과 하와를 서로 돕고 지켜주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서로를 지켜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나  
서 하와를 지켜주지 않고 책임을 하와에게로만 돌립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지켜주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먼 나라에 팔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은 다윗을 시기하여 군사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형제와 자매, 이웃  
과 세상을 사랑하며 지켜주지 못했고,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  
다. 인간의 죄와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시121:5-6).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해 주시며,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어  
둠 가운데 있는 세상과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와 절망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  
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  
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  
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  
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서로 지켜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형제와 자매, 사랑하는 가족들은 우리가 지켜주어  
야 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기를 포기하면 고통이 찾아오겠지  
만, 서로를 지켜주기 시작할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